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책임연구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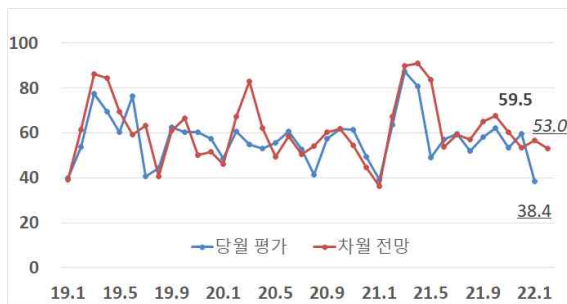
I. 2022년 1월 건설경기평가 및 2월 전망

■ 1월 지수는 전년 동월 수준, 2월은 소폭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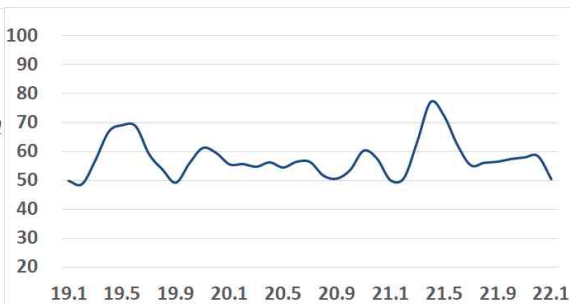
- 1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38.4로 전월(59.5)보다 하락했지만(-21.1p) 전년 동월과는 유사한 수준임. 차월인 2월의 지수 53.0으로 전년 동월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응답업체들은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종합·전문 상호진출에 따른 낙찰기회 저하, 기능인력 수급과 자재단가 상승, 건설노조 등을 지적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6.7(65.6→46.7)으로 전월보다 크게 하락(-18.9p), 지방도 36.4(57.4→36.4)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21.0p).

〈표-1〉 2022년 1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2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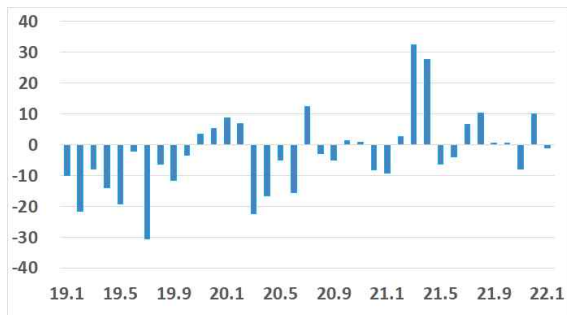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2년 1월 평가	38.4	39.3	46.7	36.4	38.9	51.7
2022년 2월 전망	53.0	67.3	53.3	52.9	50.0	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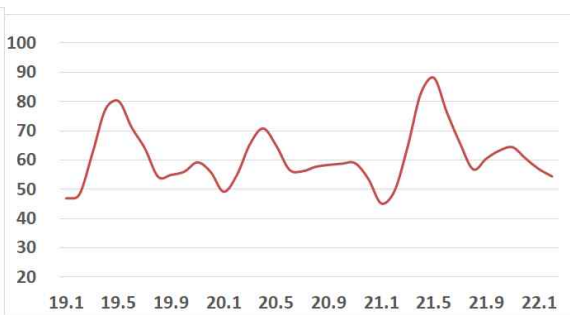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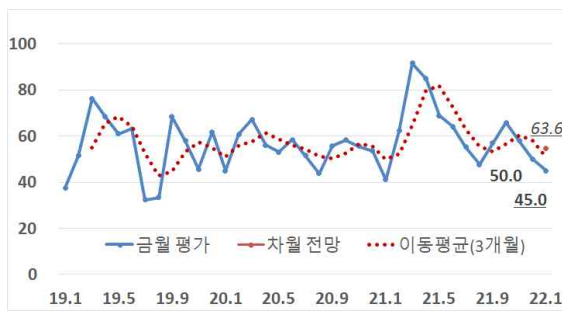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은 소폭 하락, 하도급은 전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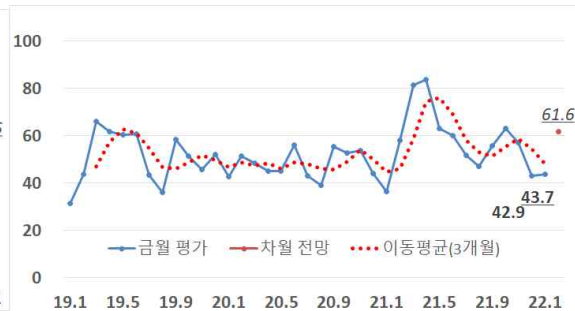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45.0(50.0→45.0)으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5.0p), 하도급수주는 42.9(42.9→43.7)로 전월의 수준으로(+0.8p) 전년 동월(36.3)보다 개선됨.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53.1→46.7)에서 전월과 차이를 보였으며(-6.4p), 지방(48.9→44.6)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음(-4.3p).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50.0→50.0)은 전월의 지수하락 수준이 지속되었으며(0.0p), 지방(40.4→42.4)도 별다른 개선세를 보이지 못했음(-2.0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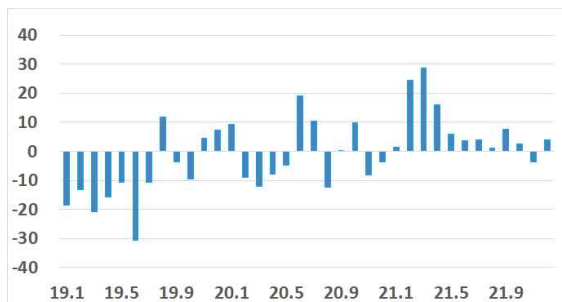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2년 1월 평가	45.0	41.1	46.7	44.6	61.1	50.0
	2022년 2월 전망	63.6	69.0	70.0	62.0	66.7	78.3
하도급 수주	2022년 1월 평가	43.7	36.3	50.0	42.1	55.6	50.0
	2022년 2월 전망	61.6	65.5	66.7	60.3	66.7	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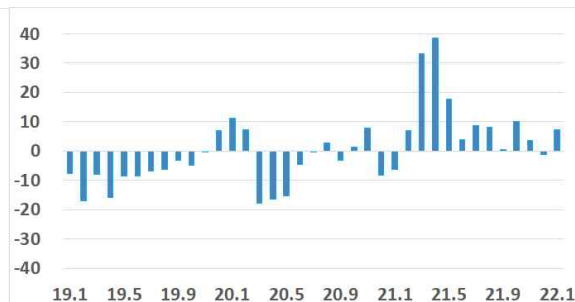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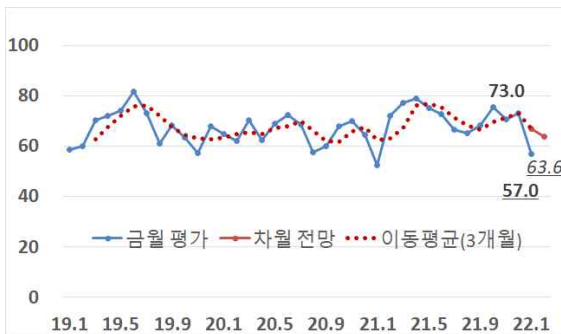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동월보다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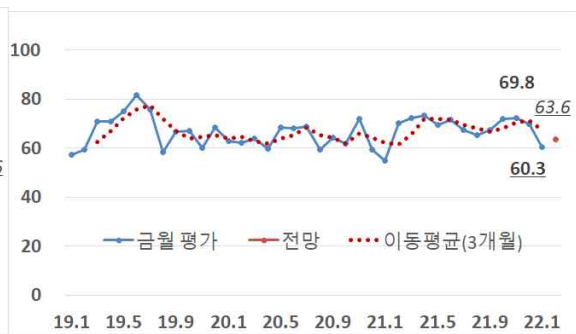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57.0(73.0→57.0)으로 전월보다 하락했지만(-16.0p), 전년 동월(52.4)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임.
 - 수도권(75.0→73.3)은 전월과 유사한 반면(-1.7p), 지방(72.3→52.9)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음(-19.4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69.8(69.8→60.3)로 전월과는 차이가 있지만(-9.5p), 전년 동월(54.8)보다 상당 수준 개선된 것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81.3→66.7)은 전월 대비 하락(-14.6p), 지방(66.0→58.7)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7.3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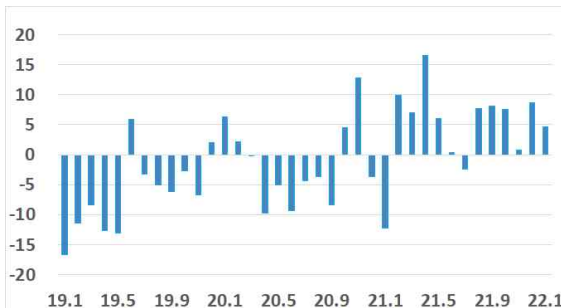
구분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2년 1월 평가	57.0	52.4	73.3	52.9	72.2	60.0
	2022년 2월 전망	63.6	59.5	60.0	64.5	66.7	73.3
자금조달	2022년 1월 평가	60.3	54.8	66.7	58.7	72.2	61.7
	2022년 2월 전망	63.6	61.3	60.0	64.5	66.7	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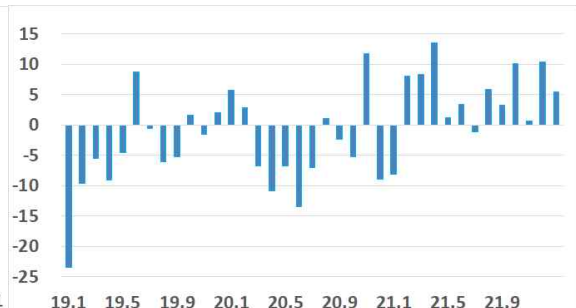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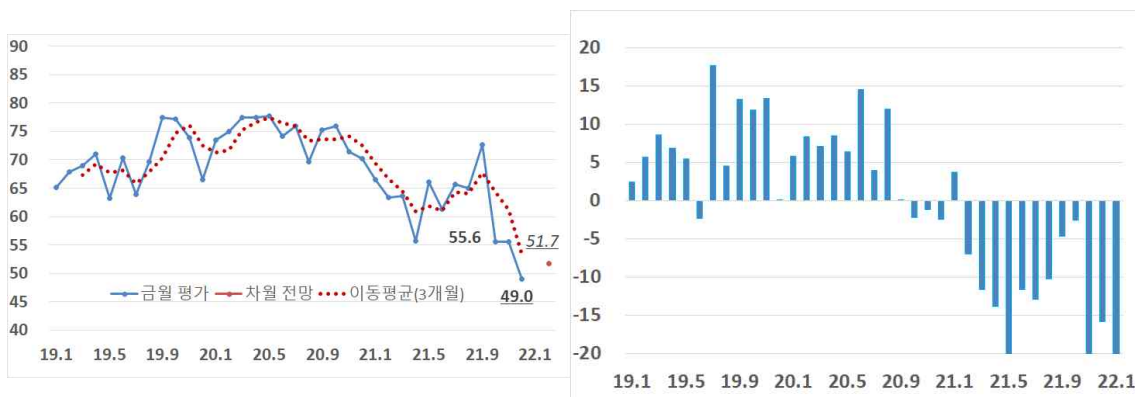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과 기능인력수급은 모두 크게 악화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55.6(55.6→49.0)로 전월은 물론(-6.6p), 전년 동월(70.2)과도 현격한 수준으로 악화됨.
 - 지역별로는 수도권(53.1→53.3)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0.2p), 지방(56.4→47.9)에서의 하락세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8.5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²⁾는 67.5(72.2→67.5)로 전월과는 차이가 적었으나(-4.7p), 전년 동월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68.8→76.7)은 전월보다 소폭 개선된 반면(+7.9p), 지방(73.4→65.3)에서는 하락세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됨(-8.1p).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2년 1월 평가	49.0	70.2	53.3	47.9	61.1	53.3
	2022년 2월 전망	51.7	73.8	56.7	50.4	66.7	50.0
인력수급	2022년 1월 평가	67.5	82.6	76.7	65.3	72.2	71.7
	2022년 2월 전망	67.5	87.4	83.3	63.6	83.3	70.0



〈인건비 체감 (개선·악화정도)〉

〈인건비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2)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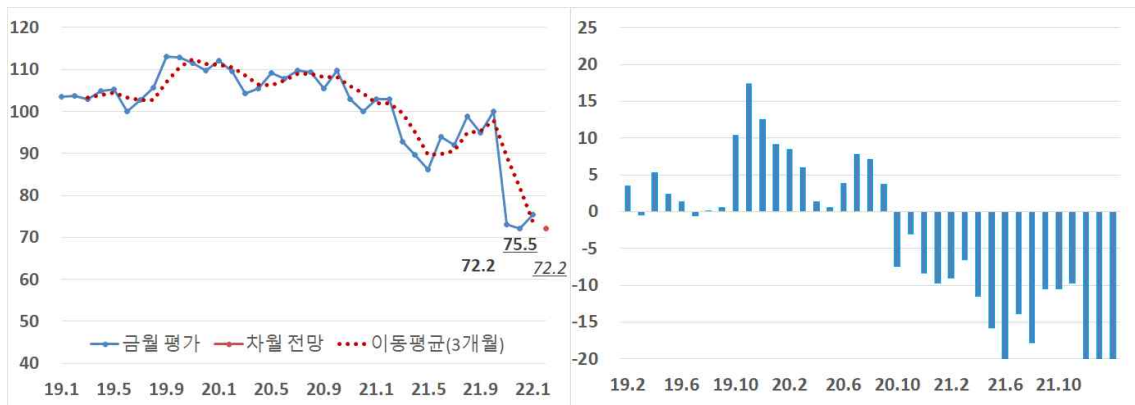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자재수급³⁾)

■ 자재비 지수는 절망적, 자재수급지수도 개선세 전무

- 자재비⁴⁾ 경기실사지수⁵⁾는 29.1(31.0→29.1)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서(-1.9p), 상황이 좋지 않았던 작년 동월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차월(38.4)의 개선전망도 전년 동월과 비교한다면 의미가 없으며, 근시일 내에 건설공사의 성수기인 봄을 맞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34.4→40.0)에서 전월에 이어 개선세를 지속(+5.6p), 지방(29.8→26.4)도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음(-3.4p).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75.5(72.2→75.5)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지만(+3.3p), 전년 동월(103.0)의 지수를 감안하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71.9→90.0)에서는 큰 폭의 개선을(+18.1p), 지방(72.3→71.9)은 전월의 수준을 유지(-0.4p)한 것으로 집계됨.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2년 1월 평가	29.1	58.1	40.0	26.4	38.9	31.7
	2022년 2월 전망	38.4	58.1	50.0	35.5	50.0	46.7
자재수급	2022년 1월 평가	75.5	103.0	90.0	71.9	88.9	73.3
	2022년 2월 전망	72.2	101.2	80.0	70.2	88.9	75.0



〈자재수급〉

〈자재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3)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게 나타남.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드물기 때문임.
 4)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5)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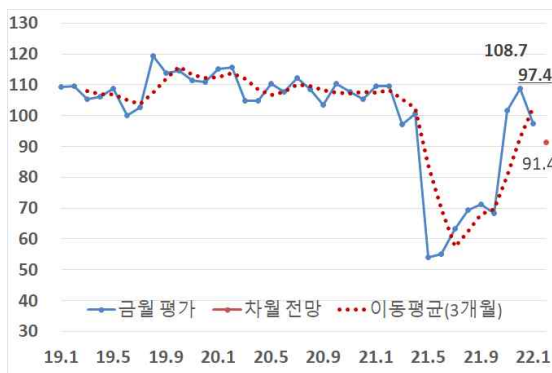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는 크게 악화, 장비수급지수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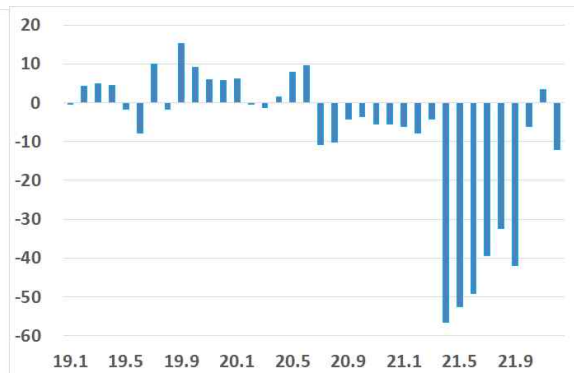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55.6(69.8→55.6)으로 악화되었으며(-14.2p), 차월(60.3)에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5.9p) 전년 동월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임. 장비임대료를 유가와 인건비 등의 유지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리 좋은 상황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62.5→70.0)에서 크게 개선되었지만(+7.5p), 지방(72.3→52.1)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음(-20.2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97.4(108.7→97.4)로 하락했으며(-11.3p), 이는 전년 동월(109.5)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93.8→93.3)은 전월의 수준을 유지(-0.5p), 지방(113.8→98.3)에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음(-15.5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임대료 체감	2022년 1월 평가	55.6	74.9	70.0	52.1	66.7	61.7
	2022년 2월 전망	60.3	73.7	73.3	57.0	83.3	60.0
장비수급	2022년 1월 평가	97.4	109.5	93.3	98.3	83.3	101.7
	2022년 2월 전망	91.4	106.5	93.3	90.9	94.4	96.7



〈건설장비수급〉



〈건설장비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참고: 2022년 1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38.4	39.3	46.7	36.4	38.9	51.7	
	차월 전망	53.0	67.3	53.3	52.9	50.0	65.0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45.0	41.1	46.7	44.6	61.1	50.0
		차월 전망	63.6	69.0	70.0	62.0	66.7	78.3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43.7	36.3	50.0	42.1	55.6	50.0
		차월 전망	61.6	65.5	66.7	60.3	66.7	73.3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급	금월 평가	57.0	52.4	73.3	52.9	72.2	60.0
		차월 전망	63.6	59.5	60.0	64.5	66.7	73.3
	자금조달	금월 평가	60.3	54.8	66.7	58.7	72.2	61.7
		차월 전망	63.6	61.3	60.0	64.5	66.7	71.7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49.0	70.2	53.3	47.9	61.1	53.3
		차월 전망	51.7	73.8	56.7	50.4	66.7	50.0
	인력수급	금월 평가	67.5	82.6	76.7	65.3	72.2	71.7
		차월 전망	67.5	87.4	83.3	63.6	83.3	70.0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29.1	58.1	40.0	26.4	38.9	31.7
		차월 전망	38.4	58.1	50.0	35.5	50.0	46.7
	자재수급	금월 평가	75.5	103.0	90.0	71.9	88.9	73.3
		차월 전망	72.2	101.2	80.0	70.2	88.9	75.0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55.6	74.9	70.0	52.1	66.7	61.7
		차월 전망	60.3	73.7	73.3	57.0	83.3	60.0
	장비수급	금월 평가	97.4	109.5	93.3	98.3	83.3	101.7
		차월 전망	91.4	106.5	93.3	90.9	94.4	96.7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